

第107回(定例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12月13日(水) 10時08分

### 議事日程

- 1. 區政質問의 件

### 審査된案件

- 1. 區政質問의 件 ..... 1面

(10時08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定例會 제3차 本會議를 선포합니다.

####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

의사일정 제1항 鐘路區廳長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鐘路區廳長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괄 질문 후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제한규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洪起瑞議員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평소 존경하는 金以煥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 후배의원 여러분! 종로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정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鄭興鎭區廳長님! 盧張鐸副區廳長님과 1,400여 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직원 상벌점수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98년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함께 일선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상벌점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해 좋은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는 동급을 정해 격려점수를 부여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풀러스웁선제와 일을 잘못하여 주민이나 구청에 피해를 입힌 직원에게 인사, 보수 등에 불이익을 주는 마이너스웁선제로 나누어서 시행함으로써 주민 서비스 개선 등 공직사회에서 새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관내 약수터 수질은 안전한지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2000년 11월 11일자 모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373개소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15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한 일반세균 등 46개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52개소의 공동시설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적합 판정 약수터는 미생물 종류로써 일반세균, 대장균, 여시니아균, PH, 황산, 이온, 알미늄 등기준 초과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종로관내 약수터는 몇 군데나 되며 이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몇 군데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주시고 특히 성균관대학교 내에 위치한 옥류정 약수터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특히 이곳 약수물은 나이가 연로하신 노인들께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종로관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부적합 사유를 알리는 한편 재검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쌍벌죄 적용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사회에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구멍가게에서 술, 담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를 못하도록 금지되고 있는데 이 법이 더욱 강력하게 재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는 판매하는 업주만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교복자율화 등 쉽사리 청소년을 구별하기 힘든 사회에서 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슈퍼에 들려 담배를 구매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면 순순히 응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소년들은 자기 부모 같은 어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사례 등이 다반사이고 호프집 같은 주점

에서는 업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업소의 예를 들어보면 2000년 11월 3일 오후 8시경 5명의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술 판매를 요구하여 업주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여 3명의 주민등록증이 확인되고 2명은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어줘서 주인은 1382 주민등록증 확인 ARS로 전화를 한 결과 '81년 4월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여 업주는 의심하지 않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고 그 이후 약 30분이 경과한 후에 경찰 합동단속팀이 들어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좀더 정밀하게 한다면서 지문검사를 해보니 2명 가운데 1명의 대학생이 모 대학교의 1학년 재학생인 '82년 1월 25일생으로 밝혀져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업주 입장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기침체로 월세도 내지 못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학생이 남의 주민등록까지 도용하여 업주를 속였는데도 업주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특히 명륜동 성대 주변에는 이렇게 업주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4~5명씩 들어와서 술을 마시면 도저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대학생들만은 이 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든지 아니면 서로 쌍벌죄를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대학가 주변에 영세한 호프집들이 월세도 못 내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업주들은 1회만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 내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鄭興鎭區廳長께서는 민의를 수렴하시고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은 꼭 쌍벌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실 대안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균관길의 전선동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지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선줄은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전선동의 지중화사업은 구청장께서 역점 추진하시는 아름다운 종로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되어야

함에도 주요 간선 및 신설도로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외에 구자체 별도 계획에 의한 지선도로 등에 대한 지중화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외국관광객들이 6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성균관명륜당을 방문하는 외국 손님맞이 준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로 대명길 그리고 성균관길로 이어지는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성균관길 전구간에 대한 전선등의 지중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주시고 그동안 구나 한전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지중화사업 추진 실적과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유실수 열매를 활용할 대안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우리 종로관내 가로수 현황을 보면 은행나무 4,370주에 1년간 수확량이 240kg을 생산하여 관내 경로당 31개소에 5.4g을 기증하고 80kg은 종자보급량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사직공원 및 마로니에공원 등에 있는 340주에서는 단 1kg도 수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사직공원 등 은행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수확한다면 어려운 복지시설에 보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실수로 교체되지 않고 있는 가로수 품종을 교체하여 앞으로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주시고 특히 타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랑잎을 모아서 수익을 올려 이웃돕기를 한 사례가 일간지에 보도된 미담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랑잎을 모으지는 못해도 은행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라도 좀더 성실하게 수확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불우시설에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치금은 안전장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금 부분보장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거래하고 있는 한빛은행은 안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을 해 봐야겠고 1년 내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월 평균 예치금은 각각 얼마씩이나 되는지 답변주시고 좀더 우리 구 예산 안전을 위해 분산 예치할 대안은 있으신지 설명주시고 현 시행법으로는 내년 1월부터 예금 부분보장제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사태를 직면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예치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측에 건의를 하여 보장을 받던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분산 예치하면 예치금 이자도 타 금융기관보다도 수익률이 높고 우리 구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鄭興鎭區廳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압류 해제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총 부과건수는 3,067건에 1,496억 2,800만원 중 2,891건에 1,377억 4,300만원을 징수하고 176건에 158억 8,500만원이 체납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176건 중 153건에 대해서만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고 23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패소사건 38건 중 대부분이 '99년 4월 19일자 택지소유상환액에 대한 법률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패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소금액과 소유자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월 25일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 민사부장 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의 6억 4,8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있어서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징수한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문유석 판사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존속 허용여부에 대한 결론을 보면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의 위헌 결정전에 이루어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이상 그 효력을 다할 수는 없다. 그러나 후속처분 처분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압류존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는 해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노인정 이전에 있어서 명륜새마을 금고 구회관 명륜1가 70-1을 매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인하여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압류권자인 종로구청에서 강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 헌 결정과 그에 따라 이미 폐지된 구법만을 가지고 압류를 말소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서민의 금고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 노인 분들을 새로운 회관에 하루 빨리 모실 수 있도록 종로구청에서도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洪起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李東奎議員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를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존경하는 金以煥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鄭興鎮區廳長님과 1,400여 종로가족 여러분! 창신3동 출신 李東奎議員입니다. 분단 50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산가족은 온 국민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100여명의 세계 각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100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식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밀레니엄 첫해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가장 빛낸 분으로 각국의 매스컴이 일제히 보도하는 영광으로 한해를 장식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종로구에서는 ISO 9001 즉, 국제 표준화 기구로부터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여 친절, 복지, 문화1번 구로 대한민국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로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며 그 동안 종로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주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2001년을 계획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창신3동 마을버스 연장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신동과 송인동의 5만 5천여 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이라 하여 대창운수 마을버스 연장 운행을 지난 '98년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실현되지 않고 주민 원성이 끊이지 않아 다시 말씀드리게 된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동일대 주민들은 매일 20여분씩을 동대문 지하철역 부근으로 걸어서 출·퇴근하는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로 서민들로서 5만 5천여 서민들이 마땅히 이용할 대중교통시설이 없어 그것도 마을버스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나 낙산 삼거리 문약사 앞 삼거리에서 낙산 가정복지관까지 약 250여m를 노선 연장이 안 되는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관계로 4천여 세대의 전·월세가 계약되지 않아 이곳 주민들의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장운행이 되어야 하며 만일 연장이 어렵다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어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고통받는 이곳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창신동에 신설도로인 지봉로 주변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봉로 정비는 지하철 6호선 6-8공구와 6-9공구 구간에 대한 도로폭 30여m 공사로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창신동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

다. 분진과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의 소음, 주변 잡상인과 어지러이 널려있는 공사잔재 등은 주민들로 하여금 수인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주민들이 받은 고통을 깨끗이 씻어주는 뜻에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인의 안전 편의를 제공해주고 타 교통수단간 환승 체계를 유지하여주고 종합적인 교통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로 다시 태어나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편의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가로수의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주민의사를 문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창신3동17-13호 박복대씨의 상가지역에 진입로를 설치하는 등 도시미관을 증진하도록 정비하여야 하고 가로등은 조도를 향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치물 공사잔재 등을 시급히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 걷고싶은 거리로 수준 높은 차원에서 정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구 창신3동 23-334호 일대 낙산 시민아파트는 96년 3월 6일 주민 자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으며 '98년 3월 10일 건축비 파다소요 등의 사유로 타 시영아파트에 비해 추정 분양가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실효 처분하여 5개 동 256호 주민 동의를 얻어 '99년 8월 9일부터 시작하여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훼손된 산세를 복원하여 낙산의 역사적 상징성과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 하에 정비한 결과 지금 그곳에 지하철이 지나고 도로가 신설되어 교통이 편리하고 보행이 안전하며 도시경관이 최상의 자연 친화적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에 창신3동 23번지665호 거주 장덕수 외 대다수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주자들 모두가 다시 모여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슬로건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떠나는 종로가 아닌 돌아오는 종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듯이 바로 이곳이 돌아오는

종로로 만들 곳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주거지구로 환원하여 전망 좋고 자연 친화적인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빌라, 혹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집단 이주한 주민들을 다시 모여 살게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창신3동 관내 1,950여 평을 기동대가 점유하고 있어 주민불편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경찰 기동대가 상주함으로써 해서 이른 아침과 저녁에 휴식공간인 주택이 소음 공해로 인해 받는 주민 피해는 극에 달해 있으며 또한 학생들 수험생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으며 또한 무더운 여름철 사생활에 제약 받는 등 기동대 수송버스의 수시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불안감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또 다른 피해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에 상주하는 기동대를 이전한 후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중심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봉제 타운, 근로자 아파트 등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섯번째, 소방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창신3동 23번지 660호에 거주하는 백학기 외 690인이 창신 낙산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중앙을 경유하는 연장 55m 폭 6m의 소방도로를 개설 해달라는 요구를 2000년 8월 31일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위 진정인 등이 거주하는 17가구 65세대는 대로변에서 우회 진입로가 협소한 관계로 소방차와 구급차량 통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어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타는 광경을 발만 동동 구르며 바라만 보고 있어야할 처지에 있어 꼼짝없이 대형사고를 입을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

합니다.

끝으로 먼저 지하철 6호선 개통이 2000년 12월 15일 개통되는데 따른 종로구는 물론이고 창신 1,2,3,동 주민과 송인1,2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의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하철6호선 착공 당시 주민설명회 때 1호선 환승통로를 신설하여 1호선 동대문역과 환승토록 하여 동대문 일대 상가와 창신, 송인동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그리고 교통혼잡해소와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줄 것을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지하철6호선 개통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승시설 공사는 설계를 해 놓고도 공사를 주민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사를 포기하고 작금에 이르러 중간역을 신설하여 환승시키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간역이 아직도 설계 착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공사가 2001년 10월에 업체가 선정되어도 공사계약 유관 기관 업무협약 등으로 2002년에 가야 공사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건설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환승역 시설지연에 따른 창신 1,2,3동과 송인1,2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은 물론 창신 1,2,3동 송인1,2동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58억이며 290억이라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6호선 건설을 맡고 있는 JR건설(주)와 남광토건(주)가 이 해당구간의 장기간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공사관리 능력이 발휘되어 턴키 발주시행보다 공사기간을 1년 이상을 단축할 수 있다고 건설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책으로 지하철건설본부와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주민들의 1년 교통비 58억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앞으로 종로구청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구정질문을 마칠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東奎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鄭泰淳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議員 달리는 해결사라고 하는 청운·세종로동 출신 鄭泰淳議員입니다. 지금은 비록 세종로가 사직동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의원은 매사 착잡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저는 여기에 많은 오늘 12개 질문을 신문스کر랩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슬로의 화려한 외화내빈, 외적으로 화려하고 국내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원성이 높은 오늘 이 시점에 이 단상에 서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 순간에도 마음은 무겁고 착잡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가장 어렵고 유난히도 체감온도가 찬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 국내 경제가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피부에 더 그렇게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을 제가 보고 한 것은 그래도 종로구의회는 종로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비전을 가지고 유리 구민을 위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구청도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여기에 대한매일입니다. 「하루살이 국회」하고 하는 우리 국정을 다루고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100일 회기를 40일을 공전을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탄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 의회의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더 충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정을 다루고 있는 입법기관에서 우리 국회는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속된 말로 남의 다리 굽는 것처럼 지금 우리 예산이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태산 같은데도 의정 사상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우리 종로구의회가 국회의 상을 배워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우리 종로구의회에 와서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스크랩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피하고 사회 일반적인 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상에 있는 鄭泰淳議員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저를 오늘 1대에 입후보해서 2대, 3대로 만들어준 세종로 주민들께서는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먼 데로 떠나는 철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러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국회의원을 바로 여기에 서있는 鄭泰淳議員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세종로가 청운동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그래도 세종로나 청운동 주민들이 보잘 것 없는 이 의원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의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서거 때는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세종로는 사직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로 주민들은 제가 당선되고 나니까 청운동으로 떠났다고 해서 철새라고 하고 또 제가 요즘에는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날씨가 추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못 타기 때문에 기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자 같으면 학교의 수업이 없으면 저녁에 항상 지역을 1시 반까지 배회하면서 잘된 것 못된 것 확인하고 하는데 지금은 야간학교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역을 도는 그러한 기회가 빈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 학교에서나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학업을 하다 보면 핸드폰을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안 켜놓으니까 이제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오해에 오해가 거듭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안 계시지만 이번에 종로구에서 2개 동이 통합되었는데 1,2,3,4가동은 통합되었어도 인접되었기 때문에 의원이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께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한 군데에서 해도 되는데 의정보고를 하는 것은 자기를 뽑아준 주민들한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사직동으로 통합되어도 일단 저는 저를 뽑아주셨던 세종로에 가서 의정보고회를 해야 되고 청운동에 가서도 한번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

도 저 자신은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한잠도 못 자고 이 단상에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 관내 지역은 아침저녁으로 합니다. 일상적으로 돌아는데 처음에는 11시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데 오토바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만은 살살이 돌아봅니다. 특히 광화문 일대에는 음식점이나 유흥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길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는 노숙자들이 유난히 많은 곳이 광화문입니다. 그래서 전자 같으면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면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취한 사람들이 벤치나 거리에 누워있어도 동사는 안할 테니까 그래도 좀 흔들어서 깨워 가지고 경찰에게 연락하고 했는데 요즘은 기온이 차기 때문에 그 양반들을 깨워서 일일이 신고하거나 소방서에다 연락을 안하면 저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돌고돌고 하는데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월동기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 저를 만들어주신 주민들은 처음 보면 밝으신마냥 밤에는 늦게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요즘에는 월동기이기 때문에 일찍 귀가하시고 문을 닫기 때문에 못보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처음처럼 한다고 하고 시종일관 한다고 하는 의원이 변심했다고 오해하시는, 저를 만들어주신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해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단상에 서니까 착잡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 눈물이 먼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수능시험 때문에 자체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가 가족들은 엄청나게 고뇌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만점자가 66명이 나오고 반대로 영점자가 345명이나 나와서 교육도 지금 무역회관 앞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경찰에서 치안을 맡고 있는 총수가 학벌 문제 때문에 불미스럽게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가장 꼭대기에서 낙하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고 또 이번에 취업하기 어렵다 보니까 고시를 많이 선호해서 고시를 많이 봅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면 고시생 합격자 20여 명이 불법병력 면제가 드러나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여기에 있는 본 의원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요즘 언론지상에 많이 특강을 하고 있는 모 교수 '돌'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논어라든가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시정률이 높고 한테 저는 여기에서 '修身'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저 자신이 먼저 저를 돌아보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하고 우선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는 것은修身이 되어야만齊家도 하고治國도 하고平天下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맡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그 분들은 오늘도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실언을 한번 함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또 우리 의원은 의원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못다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위 또는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때는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가장 어렵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나 제 이웃들이 저의 삶을 조금만 인용하셔서 여기에 서있는 본 의원도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 번 극단적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기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충남 공주에서 '67년, '66년도에 중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다니면서 부모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여력이 없어서 공부할 수도 없었는데 4H라고 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야학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문명의 혜택을 못보는 연세가 많이드신 분들과 이웃 주민들이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돌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맹인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예 호기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분들도 많았고, 중

학교 2학년이니까 어렸죠. 그때는 삼사십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예의 주시하다가 나중에는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4H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방을 얻어서 야학을 운영하고 학교 끝나면 농촌지도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농민들한테 전수하는 그런 과정을 하다가 '67년도에 대민봉사활동 그러니까 농촌에 동력분무기가 처음 나왔을 때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학생 7명이 대민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2학년이면서도 4H 봉사활동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봉사를 하면서 최첨단 동력분무기를 사용하니까 자긍심 때문에 그런지 그때 당시 치사량이 제일 높은 파라치온과 포르톨을 2시간 이상 하면 안되는데 그것을 서로 오래 하겠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원 7명이 거의 중독이 되었는데 지금 같으면 119를 부르면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이 되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해봐야 자전거니까 농촌 논길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운반을 하는데 병원을 가면 이 사람 죽었다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라고 하고 그래서 저 자신은 참 그때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관장들과 부모들한테 사정을 했는데 해당 당사자 부모는 내 자식 죽었으니까 너도 같이 당해야 된다고 해서 못매를 때려서 실신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안에 가서 가족들한테 내 자식 죽었으니까 당신 자식도 죽어야 된다고 살려내라고 해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때 당시에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서울에 오니까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연고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더라구요. 저쪽 영동포의 공장지대에 가서 국제염직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공사판에 가서 일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키는 좀 컸는데 여기에서 철근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면 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보증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노역을 하는데도, 그래서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해주십사 부탁을 해서 1주일 뒤에 그 노역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제염직이라고 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내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틈만 있으면 주위 분들한테 ‘어디 가서 기술을 배우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하고 여쭙봤더니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뜻있는 분들이 공장을 몇 군데 알선해줘서 제가 파고다미싱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쳐할 곳이 없으니까 수위실에서 수위분들이 근무하는 데서 대리근무를 해주고 저녁에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한림고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 그때 상황은 밥 세끼 먹기가, 집하고도 연결이 안되니까 라면박스 45개짜리를 가지고 한 달을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데다가 파고다미싱이 노사분규 때문에 월남에 미싱을 수출할 때 노사분규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로를 오게 되었고 종로에 와서 여기 낙원동 입구에 있는 사진관에 좀 있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광화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음식점 종업원으로 가서 있다가 보니까 음식점 종업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쓸 돈도 없었지만. 그래서 점포를 인수할 하게 되었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벌들이 있는 자본이 아닌 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안 가리고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 때 주민들이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비록 학벌이라는 가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감히 1대 때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곱 분이 나왔는데 제가 5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남의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당신은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적어도 젊은이한테 주어진 게 뭐겠습니까? 뚜렷한 목표의식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불굴의 투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2대 때, 3대 때 무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지금 이 환경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또 요즘에 우리 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관에서 임의적인 판단 때문에 혜택을 못받아서 가족 네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신문에 많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관을 믿고 더 찾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곳은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저도 여러번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자살을 안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최고라고 하는 정치 일번지 중에서 일번지 세종로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청운동에서 통합되어서 1주일만에 선거를 치렀는데도 무소속으로 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살다보면 극단적인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어려움을 여기에 서있는 저를 보고 채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잠깐만요. **鄭泰淳**議員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鄭泰淳**議員 예, 알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金以煥**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시간 구미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연례적으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구정질문을 또 다시 반복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鄭興鎮** 區廳長님께서도 지금 우리 종로구 청운아파트가 577세대가 지금 7천여 평에 서울시에서 최초의 의도대로, 저도 고건 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 때 주민과 함께 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도시국장이 재건축은 좋다고 해서

○**議長 金以煥** **鄭泰淳**議員님! 잠깐만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서면으로 질문해주시고

○鄭泰淳議員 1분만 더 주십시오. 좋습니다. 청운아파트 주민들은 학군 좋고, 주거환경이 좋아서 혼백을 여기 묻고싶다고 해서 577세대가 거기에서 살고 또 일부는 피치 못해서 떠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8세대가 잔류하고 합의를 보기도 지금 나갈 여력이 없어서 못 나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고건 시장 방침은 앞으로 청운아파트가 철거되면 공원화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이주비용까지 책정되고 공개입찰해서 컨테이너박스까지 거의 갖다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청와대에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5만 가구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란 때문에 언론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정책적으로 지금 해서 그 분들이 혼백을 묻고 싶다는 청운동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냥 살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서는 주택공급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에 이양해서 할 경우에는

○講長 金以煥 鄭泰淳議員님!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議員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힘든 분들 참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 한해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講長 金以煥 鄭泰淳議員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劉燦鍾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劉燦鍾議員 안녕하십니까? 劉燦鍾입니다. 먼저 우리 종로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金以煥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밤낮 없이 발로 뛰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종로구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각 국장님들께 간혹 이런 질문

을 드립니다. “디지털 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아날로그행정과 디지털행정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의 소신을 갖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디지털행정이라 함은 이렇다하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변별력이 확실합니다. 둘째는 투명성입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다 보니 불평부당함이 개입될 소지가 줄어들습니다. 셋째는 지속성입니다. 어제의 잣대가 오늘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넷째 예측가능성입니다. 앞서 열거한 3가지 항목으로 인해 잠깐쇼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 이럴 것이다라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섯째는 쌍방향성입니다. 구청장과 일선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또한 공무원과 주민들간에 자연스런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행정에 관한 정의는 본 의원 나름대로의 정의를 갖고 정의는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혼미를 거듭하던 미국의 대선을 놓고 보더라도 최첨단 컴퓨터에 의한 선거방식과 수개표 방식의 논란 이 18세기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의 제도 제도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딱히 이렇다라는 정답은 없다고 보며 디지털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21세기의 서막을 여는 2001년에는 도시계획 구역해제,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우리 교남동의 지형이 바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과 주민간에 신뢰조성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남동의 기초를 디지털 교남동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1세기의 행정에 대한 밑그림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직원의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디지털행정을 구현하는 관건은 일상 공무원들이 신바람을 내며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기업들은 불경기에 광고를 더욱 공세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광고비를 불요불급한 항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경기에는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에서는 다릅니다. 적극적인 광고 투자만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요한 수단으로 강구되고 있습니다. 요즘 人口에 膾炙되고 있는 펀드멘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2경기가 올 것이냐를 두고 우리나라는 펀드멘탈이 탄탄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견해와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부실함으로 내년도 경제 동향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펀드멘탈은 제도적인 사회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의 심정적인 의지라고 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종로구의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펀드멘탈이라 함은 직원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기본이 되는 이러한 논리를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해왔고 또한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MF다, 경제위기다 했을 때 급여를 깎을 생각만 했지 일할 분위기 조성 위한 여건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회 예산상의 급여인상 등이 어렵다면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구청사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호화로운 청장실, 국장실보다 훌륭한 여직원 휴게실, 어학 컴퓨터실 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핍의 강요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심정에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허가 부서의 통합운영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 인허가팀

을 별도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무슨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들렀을 때 이 부서 저 부서를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건축, 토목 행정 등을 한 장소에서 논스톱으로 진행 처리하고 기존의 부서는 사후관리 등을 전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서 한팀을 파견하고 소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답니다. 아무래도 비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이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에 타 시·군·구의 좋은 사례를 연구해서 벤치마케팅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한일공동 사이버 알니미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정통부에서는 한국과 일본간에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말기 하나로 한일간에 모든 정보와 교환이 가능한 체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구청 홈페이지의 포털화 및 새로이 추진중인 주민문화복지센터 연결망 확보, 광범위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 등 사전 정지작업과 일본 동경에 종로구라고 할 수 있는 치오다꾸와 자매결연을 통한 양국간 정보기술 교류 등으로 해서 월드컵 대회시 지자체가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로변 가로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의 개념을 갖고 업무를 관장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수에 관한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미시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 차원의 미관을 추진하는 거시적인 고려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종 선택, 변경, 위치선정 등에 있어서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좀더 미려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로수를 그리고 종로를 상징할 수 있는 명물로 가꾸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그린오너제 도입을 통한 가로수관리 실명제를 추진

가로수 한그루 마다 종로주민 1인의 관리인을 위촉해서 애착을 갖고 관리해나갔으면 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00년 하반기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민원분야 최우수구 및 세무분야 우수구로 선정됐고 여권, 지적, 민원봉사 부문에서 ISO 9001 인증을 득하는 등 명실공히 지방자치 모범을 보이는 구가 우리 종로구이기에 지난 기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수성 및 도약을 통한 좀더 발전적인 종로구 상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봤습니다. 구청장님을 포함한 종로구 직원 여러분! 을 한해 정말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 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劉燦鍾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千相旭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議員 천상욱입니다. 이 자리에 조금 전에 개최하기 전에 제가 오늘 질문요지를 검토했더니 종로구청의 최고 간부 한분께서 3선 의원이 다 질의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9일날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오후 3시에 마치고 저녁이 되니까 저희 선배들과 후배 몇분들이 수고했다고 소주를 한잔 하자고 해서 인사동에 내려와서 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두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두가지를 구정질의에 꼭 따져서 그 결과를 나한테 가져와라 해서 몇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일날 일요일이고 12일날 회의를 하면서 부랴부랴 질의서 두가지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급히 하다보니 질의서 내용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주택과의 모직원이 전화로 저에게 따집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33조를 위반한 사실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금지한 사실도 없는데 왜 위반이라고 따지니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반을 잘못했다. 위반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관련된 사항이다 하고 제가 수정해드렸습니다.

질문하신 공무원께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요지가 잘못된 것을 정정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청동 산2번지 일대는 공원입니다. 특히 옛 한양도성이 아름답게 쪽 뻗어있는 그러한 모든 시민들의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최근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름다리 노송을 회수해가면서 그리고 각종 수목을 베어내면서 성곽 아래로 터널공사가 현재 진행 0%입니다. 아마도 이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아름다운 삼청동의 산책로는 삼청동주민뿐 아니고 종로인 모두가 즐겨찾는 심신을 달래주는 아름다운 산책로는 이제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행착오가 만약 종로구청측의 협조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의심은 성북구청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종로구청의 협조하에서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에게 했는데 이것은 저는 확인할 수 없어서 답을 못했습니다. 아늑한 풍광이 그리워서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은 이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지옥으로부터 또한 매연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삼청동과 성북동간에 연결 도로의 착공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 공사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단도 할 수 없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교통지옥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사후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한가지는 경복궁길에 봄과 가을에 관광시즌이 되면 많은 수백대의 관광버스로 인해서 승용차들이 경복궁에서 성북동까지 약 4km에 걸쳐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그리고 문화재관리청 등과 협의를 한다고 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지

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러한 데 더욱 더 길이 하나 더 생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설명을 안해도 결과를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조기 진달해서 구정업무에 정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제가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안 것은 9일이지만 본 의원이 알기 전에 벌써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민영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법률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개서 허가해줌으로써 주거환경을 해침은 물론이고 특정인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승인동 569번지의 대지는 당초에 1,514㎡였습니다. 1,514㎡의 대지에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약 32세대 정도 건축할 수가 있는 면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2세대는 20세대가 넘기 때문에 민영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득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업자가 이러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569번지를 5필지로 쪼갰습니다. 쪼개서 신청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 필지 569번지에는 19세대를 허가신청하였고 또 569번지의 2호로 분할한 필지에 13세대를 신청을 했으며 569-3으로는 14세대, 569-4로는 12세대 그리고 569-5로는 14세대 등 총 72세대를 부당하게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주택과에서는 이를 여과 없이 허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건축법 등 관계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36세대 정도밖에 신청할 없는 것을 72세대로 건축허가한 사실을 두고 민영주택건설 담당공무원의 무지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요령으로 봐야 할 것인지를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 건에 불과하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민원인들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은 계속 허가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창신2지구는 6층 아파트 8동 108세대로 서울시에 건축하고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했으나 허가내용은 이와 달리 지상에 7층 또는 8층에 117세대를 당초계획보다 9세대가 더 과다하게 신청된 것을 이것도 역시 수정 없이 허가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지적하도록 하면 한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주도한 지방건축직 6급공무원은 5급 행정직이 담당해야 하는 주택과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 발령 직전인 '99년도 12월 31일자로 구조조정이란 명분 때문에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던 모 과장은 보직을 박탈당합니다. 바로 그후 부터 3일 후인 2000년 1월 3일자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6급 건축직인 주사가 과장 직무대리로 과장이 된 경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이 잘 안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장직무대리의 오른 이 사람은 그 이후에 과장직무대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변칙적인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2000년 2월 23일자로 허가신청된 승인동 181-105 외 2필지의 허가경위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 승인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계획에는 4층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계획에 따라 4층이하로 신청해야 하는 본 건은 5층으로 신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건축개선키획에 위배되어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동 개선계획에 적합하게 신청을 하도록 설계사무소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 보완요구 이후에 담당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0년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휴가를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직무대리라 하는 이 분이 이 직원이 휴가를 가자마자 바로 그날인 5월 25일 직무대리를 보고 있는 과장이 직접 기안하고 그 과장이 결재를 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위배되는 지하2층과 지상

5층의 아파트를 건축하도록끔 허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 이전의 문제이므로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사람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위반한 사실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千相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李炯述議員!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加회동출신 李炯述議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종로는 서울의 중심지요 우리나라의 심장의 중심부이며 역사유물과 사적지 또한 즐비한 곳 이기에 잘 가꾸고 다듬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께서 구정을 이끌면서 여러 방면에 종로구청이 1등을 한 것이 많습니다. 종로를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종로를 만든 鄭興鎭 區廳長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청장께 종로의 문화를 발굴 계승시키는 문화구정을 펼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덕궁 옆 원서공원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혼례식장을 마련하여 전통야외혼례식을 일반대중이 무료로 부담없이 치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전통혼례식을 치르려고 하면 최소한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통에 어울리는 건물도 짓고 혼례식에 필요한 의류도 준비해야 되고 가마도 필요하고 말도 한두 필 준비해서 말 타고 가마 타고 피리불고 나팔불며 우리 젊은이들이 전통혼례를 치른다고 하면 거기를 지나가는 많은 외국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옛 풍

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의 혼수비용도 이런 부분이 금액이 많이 들어서 항상 걱정들이 많습니다. 무료예식장의 축하객으로 온 손님에게 옛 잔치국수 이것은 몇 천원 안됩니다. 저비용으로 이런 멋진 혼례를 치른다고 하면 이 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호화결혼, 그릇된 결혼문화를 올바르게 바꾸어서 많은 분들이 저비용으로 혼례를 치른다고 할 것 같으면 잔치를 치르는 젊은이들에게 존경도 받고 우리 종로가 아름다운 추억의 고향으로 깊이 새겨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필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의 집이라든지 낙원동에 있는 운현궁 등은 고비용에다가 서민으로서는 감히 그곳에서 전통혼례식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아주 힘있는 분들이 접수하고 나면 서민들은 접수할 기회를 놓칩니다. 이곳의 전통혼례식 보다는 창덕궁 비원 옆에 있는 원서공원에 무료로 전통혼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길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 북촌마을 대축제를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전통역사 문화를 지닌 선진국은 마을축제가 국제적인 관심과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축제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축제가 자리잡을 때까지 적극 지원하고 어느 정도 자생의 틀이 잡힌 후에 그 마을 스스로 축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북촌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사적지가 즐비한 곳이기에 북촌축제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촌가꾸기 종합대책 주민설명회를 서울시 주최로 2000년 8월 26일, 2000년 11월 4일 두차례 개최하려고 했는데 두차례 모두 일부 주민의 반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회 자료 내용에 보면 한옥 매입에 필요한 비용 500억원 예산확보, 개·보수비 지원 300억원 예산확보, 신·개축 비용 60억원 예산확보, 환경정화 등 60억원 등등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주민설명회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한 일부 주민이 조직적으로 그런 예산은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기재해왔다고 말해 온 동네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주민들이 거짓 홍보된 사실이 맞는지 또 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촌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앞으로 한옥을 주민의 의사과 관계없이 보존하고 규제한다고 합니다. 청장께서 앞으로 북촌마을이 한옥보존지구 및 한옥을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제한다고 보시는 지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북촌지역은 종전에는 4종 집단미관지구였습니다. 지금은 역사, 문화사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북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건축규제 또 다른 숨겨진 다른 규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무척 궁금해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도 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종전의 4종 집단미관지구가 역사, 문화사적지구 및 그 내용 속에 사적지가 포함되어 북촌마을에 시행되고 있는지 또 이 법이 북촌마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북촌에 사는 많은 주민은 한옥이 묶이고 규제받고, 앞으로 한옥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과연 역사, 문화미관지구로 바뀐 것이 한옥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는 지에 대한 답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민설명회 자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북촌마을에 만연되어 있는 한옥을 보존한다 한옥을 규제한다 주민설명회를 하면 한옥보존지구를 인정하게 되고 한옥을 평당 200만원에 서울시가 강제 매입하여 한옥을 등록하면 그 가옥은 사적지로 지정되고 그 주변 가옥은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등 많은 주민들이 불안과 우려 속에 그 진의를 몰라 불안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니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주민이 선출한 선량한 집행부의 장은 그 진의를 밝혀서 올바르게 홍보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장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재 국가의 도시계획 정책은 종전 도시계획법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편의 위주로 제정되어 불필요하게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등 현 자치시대와 역행하고 있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여 도시계획의 과잉 결정이나 결정된 도시계획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방지과 도시계획편입 4건의 최대한 보장책과 도시계획 결정시 사전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는 등으로 현 시대에 맞게 주민의 편에 서서 민주적으로 개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4종 미관지구도 문화미관지구로 용어를 바꾼 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4건의 보상현실은 시가보상이 최대한 보장되어 오히려 현시점에서 보상가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음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 내용이나 법 운용 정책이 제대로 주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북촌개발이 문화유산의 발굴 계승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슬럼화 되어 간다는 여론이 팽배되는 등 국가의 도시계획 정책이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금년 한해 못다 하신 일들 모두 다 이루시고 신사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고 온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議長 金以煥 李炯述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51分 會議中止)

(12時16分 繼續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로구청장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興鎭 區廳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鎭 존경하옵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연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질문과 질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起瑞 運營委員長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직원 상벌점수제 운영방안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상벌제도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포상을 받을 경우 근무성적평정표나 인사에 반영하고 있고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승진 및 근무평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우리 직원 사기양양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별백계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종로구관내 약수터 수질의 안전도, 특히 성균관대에 있는 옥류정 약수터의 수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우리 구에 약수터가 13군데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3/4분기까지는 모두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달에 실시한 4/4분기 수질검사서에서 만수천 약수터와 버드나무 약수터 2개소가 대장균 과다로 부적합판정을 받아 일시사용 중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 2군데에 대해서는 물탱크와 주변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금월 중 재검사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내 옥류정 약수터는 금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선전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특히 쌍벌제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를 해서 이런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빨리 개정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만은 영세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는 실제로 이제 막 개업을 했는데 다른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보내서 그것을 고발함으로써 새로운 업소를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미성년자가 거기서 음주를 하고 나와서 밖에서 무슨 싸움을 했다던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사과정에서 어디서 술을 마셨느냐 했을 때 모 호프집이라든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을 때 그때 그렇게 걸려드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하신 대로 대개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헌혈증이라든가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써낸다면 해서 참으로 많은 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년을 몇 세로 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생 중에 일찍 학교를 들어가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버젓이 같은 대학생 틈에 끼어서 들어왔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참으로 업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그런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상당히 미성년자한테는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미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행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성균관길에 전선 등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균관에서 대명거리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공사와 병행해서 대명거리는 한전과 수차래 협의결과 지금 겨우 지중화 공사에 착수 중에 있습니다. 성균관 길은 울곡로에서 성균관대 입구 250m 구간의 한전주는 지중화 되어 있으며 나머지

적극 협조해서 지중화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공사 지중화 사업 현황으로는 인사동길 600m구간 5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중화 하였고 금번 대명거리 330m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6억으로 지금 지중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수확을 좀더 충실히 해서 불우시설에 제공할 용의는, 그리고 가로수를 유실수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가 등등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들으니까 어느 의원은 은행을 따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원님도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으나 은행은 따지 않아도 결국 떨어질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그 은행이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그것이 떨어져서 굉장한 악취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일부는 타서 보내고 또 시에 종자로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리를 잘해서 효과적으로 수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금고의 안전성과 분산예치 및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주셨습니다. 어제 吳錦南 副議長께서 구금고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 하지만 좀 다른 질문도 있으시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월평균 예치금액은 일반회계 156억원, 특별회계 238억원으로 해서 총 39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빛은행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구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한빛은행이 부실할 경우에 대비해서 서울시와 25개 구가 공동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고 한편 한빛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인 75%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로 출범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안전성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 지방자치단체는 1 금융기관만을 금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금고를 포함한 타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분산, 활용하기에는 현재법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해제 및 체납분 미압류 사유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98년 9월 19일자 법률 5571호로 폐지되고 '99년 4월 29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 위헌결정 이전의 법률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과 및 압류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 및 압류해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각계 별 사안별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분 176건 중 153건은 압류하고 23건 약 8억 4,000만원은 소유재산을 조회한 결과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압류하지 못하였고 택지소유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사건 122건 중 패소한 38건의 소송금액은 111억 5,900만원이며 소송원고 현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하신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취소 및 압류해제 등과 관련한 유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별도의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될 경우 명륜3가 새마을금고 관련사항도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창신3동 마을버스 연장운영의 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수년간 말씀하신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 동안 창신3동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대창마을버스의 노선연장 운행 건에 대해서는 낙산공영주차장에 회차하는 조건부로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12월 중이라도 임시운행을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미 아시다시피 이 대창운수가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아파트 철거지에 차고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이웃 창신2동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以煥 議長님이나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님이 합의한 대로 회차를 조건으로 이렇게 12월 중에 시험 운행하도록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

중에 시험 운행하도록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봉길 주변 정리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수준높은 지봉길 완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요즘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암흑 동에서 명동이 되었다고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가로등이 새로 설치되고 가로등 밑에 등이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참으로 밝은 동네가 되어서 기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노점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가에서 보도에 내놓는 적치물이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 교장께서 특별히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형화분대를 칠팔개 이미 갖다가 놓아서 노점상이 학교 앞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주차문제나 노점상, 잡상인 이런 문제 그리고 조도문제는 거의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도 청소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지시를 해서 새로운 신장로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신 산6번지 낙산아파트 철거부지의 주거공간 확보에 관한 건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흥물로 남아 있는 낙산시민아파트를 금년 11월말까지 모두 철거하고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국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구민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거공간 이것도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같이 서울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신3동 경찰기동대 이전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이곳 주민으로서 매일 새벽마다 훈련받는 소리 등 동네에서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거론하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이웃 아파트에서 보면 거기에서 체벌을 하는 광경도 보이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되는 광경도 보이

고 해서 도심에 경찰기동대가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온 동네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李東奎 委員長님과 더불어서 경찰청에 항의방문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같이 힘을 합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신3동 23번지 426~665간 소방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참으로 우리 종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불이 나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도 그 중에 하나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것이 55m 길이이고 6m의 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6호선 동묘역과 1호선 동대문역간 환승시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원 계획대로 왜 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동대문 일대를 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항의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하철 본부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부시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일이백 분이 가셔서 항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계획해서 의원님과 더불어서 이 내용을 시장께 전달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승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이 공사단축 등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의 말을 빌려서라도 빨리하도록 그렇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鄭泰淳 議員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국문제라든가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얘기라든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절절히 남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외람되지만 여기가 신상발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 늦게 만학의 길을 걸으면서 공부하

옴 의회라는 걸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생활을 지냈다고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만 의원들이 외국의 경우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자기 선거구를 조정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적어서 세종로동이 통합된, 통폐합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鄭泰淳委員님의 정치 고향인 세종로동을 떠나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동정을 금하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똑같이 겪는 경우지만 제가 시의원일 때는 얼굴을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그분들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적이 없을 수 없다. 더군다나 세종로동에서 너 선출해줬는데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성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아마 두가지 부류일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한가지 부류와 또 한가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鄭泰淳委員委員 모두 아시다시피 꾸준히 공부하고 또 체력을 단련하는 모범적인 의원님이시고 하셔서 결코 슬퍼할 일은 아니고 새로이 더 잡은 청운동에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다시 정치의 고향을 설정할 수 있고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외람되지만 큰 나무일수록 거센 바람과 풍파에 시달리면서 버티어온 것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해주시고 서면 답변키로 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직접 듣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주마간산 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운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을 주셨습니다. 잔여세대 숙원사업인 재건축 추진에 대해 새로운 차원으로 연구, 검토하여 도와줄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충정심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시할 것은 현실은 현실이란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공유지인 청운아파트 부지를 주민들이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까 창신3동 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지금 경찰청에 우리가 타진해왔더니 절대 팔지 않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진실이란 것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오랫동안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도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기가 군사보호구역이고 또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께 제가 직접 가서 질문을 독대해서 했습니다만 완강하게 여기는 공원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변하고 세종로동이 통·폐합될 수도 있고 다시 부활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존하는 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부연설명 드릴 것은 잔여 120여 세대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여기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난망하기 그지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0년이 지난 이 수송국민학교 건물인 종로구청을 새로운 청사로 신축할 용의가 없는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임기 중에 신청사를 건립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를 시장께서 약속을 해서 남산으로 이전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아직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 분

명히 소방본부를 이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질문주신 바와 같이 제1별관도 그때 해결을 해서 전부 새로운 우리 신청사를 마련토록 해서 의원님들이 가장 서운해하고 불편해 하시는 이 구의회도 당당하게, 멋있게 지어볼 예정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감과 전문성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라 하셨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의 미해결 사유를 분석하면 법적인 제약,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사인간에 해결할 사항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해소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고충민원의 조성, 조사, 중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실 내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원스톱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효성있는 방안을 더 적극 발굴해내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타 단체와 다르게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중간 회시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민원인이 진행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과 세종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종전엔 11톤 대형차량을 고정배치해서 거기에서 적환장과 더불어 했습니다. 현재는 당주동 상차장은 재활용품 수집과 음식물 분리수거 이후 약간의 생활쓰레기 상차작업만 하고 있어서 악취 및 차량소음은 많이 줄어든 형편에 있습니다. 대형 적환장이 없는 우리 구의 여건상 안전한 이전은 어렵고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세종아파트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무실 밀집지역으로 옮기면 되겠다는 지시를 오늘 아침

에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낙원동 적환장이 우리 구청 뒤로 와서 의원님들과 저희가 이렇게 말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의 쓰레기 적환장 문제는 심각한 것이지만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9월 말까지 생보자 신청자를 각 동에서 배치되어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을 다섯번 이상 방문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확인 과정을 거쳐 수혜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신청자 중 탈락세대, 급여가 종전보다 현저히 감소한 세대,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곤란한 세대 등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월동기 3개월 동안 가구당 10만원 수준의 양곡 40kg과 신청부터 구정까지 25일간 동별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점심에 떡국을 제공하는 등 시 차원의 지원대책과 우리 구의 아름다운 종로인 사랑고리 연결사업 4,000여 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겪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이 가령 매월 2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그 20만원을 제하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20만원이 나오는데 차라리 일하지 않고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모님이 저희 집에 계시는데 제가 가끔 용돈을 10만원씩 드리는데 이모님이 우리 조카가 10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받는 돈에서 10만원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안 드려야 되겠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법이 여러 가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劉燦鍾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저한테 안 주셨는데 요즘에

신지식 신정부 그리고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외국어의 홍수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게 태반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사전을 찾아보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지만 저희 직원들도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매주마다 신지식 신정부라는 유인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개 서너장짜리인데 거기에 새로운 용어나 조어를 전부 망라해서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4.4분기 라든가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신지식 신정부에 대해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을 우리가 상급도 주고 휴가도 보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보다도 동에 가서 이걸 낭독하게 하고 전부 한번이라도 눈으로 훑어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외래어 속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劉燦鍾議員님께서도 공부하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낫설고 좀 맘에 들지 않는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약을 먹는 심정으로 외래어를 가까이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저 자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노트북을 갖고 계신데 고백하지만 제가 컴맹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워했는데 영국 수상이 컴맹이라고 고백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컴맹에서 탈출해야 하는 그런 때가 이미 도래하지 않았는가 해서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요즘에는 어르신들 전산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참으로 보람있어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의원님도 제안 하셨지만 새로운 신지식 신정부, 그래서 전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직원 후생복지시설 개선, 또 인·허가 부서통합 운영, 앞서가는 행정 등 비전있는 종로를 제시해주시고 한번 제시하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사기나 구의회 사기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소신있게 일해야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기 때

문에 직원들의 종로가족이라 불리우는 우리 1,400여명의 직원들 사기 양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자부가 예산편성을 하게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후생복지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많은 구민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직원들에게 18개의 취미클럽이 있는데 거기가 자문위원 제도가 있어서 그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러한 밑받침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종로구 가족들이 25개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위하는 취미클럽이 대다수 생겨난 배경이라고 사료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미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최우선 구로 선정되는 우리 모두 같은 기쁨을 나누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와 또 6급 팀장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원인이 가장 많은 건축 분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건축허가전담반을 민원상담실에 전진 배치해서 민원편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허가 부서의 통합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허가전담팀만을 전진 배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제시도 해주시고 또 그린오너제를 실시할 용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알아봤더니 과거 서울시에서 자기 집 앞이던가 동네의 가로수에 대해서 그린오너제로 해서 책임지기로 했는데 성의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미약해서 호지부지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주민들이 나무에 대해, 환경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 있음으로써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부터 한번 실시를 해서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종문제라던가 간격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프랑스처럼 각 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적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나무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千相旭議員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삼선의원께서 나오시더니 아주 폭탄 발언을 해서 가지고 집행부가 속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계가 좋은 것은 때때로 매운 겨울도 있고 뜨거운 태양도 있어서 더 맛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듯이 우리 삼선의원님께서 아주 점잖게 그리고 날카롭게 질문주신 데 대해서 아주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청동 산 2번지 일대 지하터널 공법으로 삼청동과 성북동을 연결한 도로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 자연을 훼손을 해가면서 이러한 것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종로구가 협조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나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도로는 폭 12m, 연장 900m로써 '96년 2월 20일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고시 되어서 시사업비로 성북구에서 공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북구가 825m이고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75m입니다. 도시계획법 제59조제2항을 보면 2개 구 이상인 경우 협의 시행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협의 시행해야 하는데 금년 9월 28일에 기 협의했는데요 지난 9월 30일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성북구청으로 하여금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자연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후 교통문제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관련한 각종 허가와 그 외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축법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 노인정, 유치원, 놀이터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을 일정비율만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필지가 밀집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음으로 사업계획 승인대상 이하의 규모로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인동 569번지는 당초 하나의 필지를 나누어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 승인된 건물이 있으나 이는 각 필지의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사업 주체가 될 수 없고 건축주들이 기존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임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사항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지개량방식 중 환지방식으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정인이 공사를 총괄하지 않고 환지된 각 필지의 소유자인 주민이 주도하여 개량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것이고 창신2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주민 모두가 7~8층으로 건축허가를 요구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특정 공무원의 주도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처리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환지방식의 개량임으로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의 기술직 배치는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 및 용도변경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당면사업이 많았으므로 '98년 9월부터 토목직 사무관이 주택과장으로 보직하여 왔으나 '99년 12월 토목직 사무관 1명이 퇴직해서 당시 계량1팀장을 하고 있는 건축직을 주택과장 직무대리로 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은 가급적이면 기술직 과장으로 보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주장도 옳다고 생각되어 2000년 1월 주택과장으로 보임한 당시까지는 어려운 자리에서 성실히 근무했다고 판단되어 보임했으나 그후 일부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 7월 즉시 강인호 직무대행을 과장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징계조치 한바 있음

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의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姜仁豪係長이라고 제가 직접 실명을 거론하는데요 이런 사유로 직무대행을 했습니다만 모 시의원이 이 계장을 작년부턴 아주 몹쓸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서울시에 이 시의원이 종로구청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姜仁豪係長의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을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몰래 진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이 내려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한 결과 그 전부가 사실과 다르고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시와 협의해서 직위해제를 하고 경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 시의원이 그 서류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종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카피를 해가지고 선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鄭興鎭 區廳長이 姜仁豪係長이 한양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동고 졸업생이기 때문에 파면감 입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했다.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악선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기밀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姜仁豪係長을 불러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한양대학교 나온 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체대고 그는 공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누명을 씌우고 다니고 악성루머를 퍼트리고 다닙니다. 그랬는데 姜仁豪係長이 행정심판을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되고 잘못했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위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타구청으로 전보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수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카피해서 온 곳에 돌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모 사정기관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빌

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악성루머를 퍼트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기록도 되고 있지만 지금 사직당국에 고발해냈습니다. 그 동안은 수십 가지의 흑색선전에 제가 당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 점에 대해서도 증인이 2명 나타났습니다. 그 증인은 저의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종로에 정의가 무엇인가를 자기들이 판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서주겠다고 해서 공증해 가지고 지금 검찰청에 제출해놔서 며칠 안에 이것이 공포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악성루머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해량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더함 없는 그런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정말 박봉에 시달리는, 격투에 지친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위반한 관련 각종 허가와 관련된 질문 승인동 181의 105호 건축허가 처리경위는 당시 담당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휴가 중일 때는 전결권자인 과장이 직접 처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계획 상 4층이나 5층으로 건축허가된 사항은 통필지가 3개 필지를 합필하여 건축 신청한 내용으로 이 3필지의 각각 건축허가보다는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사료되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李炯述議員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議員님도 삼선 의원님으로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연년세세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거론도 하시기 싫을 정도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참으로 이것을 했으면 하는데 왜 안 하는가 하는 이런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소생도 구청장이 벌써 6년째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가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께서 이 구청장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주문 해주신 데 대해서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먼저 창덕궁 옆 원서공원 전통혼례장을 말씀하십니다. 코리아의 집이나 또 운현궁의 비싼 그런 혼례비용 말고도 우리가 전통혼례를 해서 외국 관광객에게 개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여러 번 독려했는데 현대건설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뭐냐 하면 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와 토지주가 현대건설 하나였는데 현재는 현대건설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분권 문제가 같이 생겨나버렸습니다. 이미 매스컴에 보셨듯이, 그래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직접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촌마을대축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호를 북촌으로 지어야 한다는 조크도 있을만큼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존경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저희가 국악로대축제 그리고 인사전통문화축제, 대학로청소년축제, 낙원동문화축제 등 지금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지역의 문화축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문화축제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강구해서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담당에게 좀 상의도 하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한번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북촌마을가꾸기 주민 설명회 자료의 예산은 거짓말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떤가 그리고 북촌마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한 것은 사적지 보존을 위한 규제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건

축 규제 등에 대한 주민 불안에 대해서 홍보 용의는 없는가라는 대강의 질문이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촌마을가꾸기에 대한 주민설명회 자료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총사업비 844억원을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명년에 160억원이 예산심의에 상정되었고 설명회 자료내용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보존 방법도 한옥보존을 원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등록 받아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보존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옥보존을 원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것을 이미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북촌마을이 4종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된 것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전국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사적지 등 별도의 건축규제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민들이 서울시의 북촌가꾸기 시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오늘도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존귀한 질문과 질책,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동안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또 상임위원장 또 삼선 의원님, 재선 의원님, 모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심조사하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우리 종로구는 어느 구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구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손을 맞잡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이 알도록 종로구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또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향상을 하고 이제는 세계를 향한다는 의미에서 ISO 9001 인증 획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 참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부터는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 개인적인 일을 망쳐가면서까지도 이렇게 구

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하는 데에는 참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鄭泰淳議員께서 여러 가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적으로는 가정이 있고 또 생활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해온 삼선 의원은 벌써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헌신 봉사해오고 있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모든 일을 치우고 이 일에 전념하다시피 해서 희생해온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충고를 해주시고 하고해주신 덕분에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은 긴장하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 수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답변을 마치면서 이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보충질문이나 서면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먼저 말씀 올린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232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협소하고 불편한 의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를 통하고 6층에 가건물을 짓는 방안으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편리한 사무실을 납득이 갈만한 공간을 마련코자 할 것입니다. 그동안 참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이 여러 가지를 가슴 속에 담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삼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새해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講長 金以煥 鄭興鎮 區廳長님!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 당초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을 심사한 결과보고서 채택 및 당면 현안사항 회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오늘 보충질문

과 답변까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洪起瑞議員 議席에서 - 議長!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없고,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 답변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제107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당면 현안사항 회의 등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鄭興鎮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20分 散會)

(13時20分 散會)

○出席議員 19人

金以煥	金正 大	宣相善	鄭泰淳
李憲九	千相旭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崔康洵	玄壽漢	洪起瑞
洪承台	安載弘	李東奎	吳錦南
吳弼根	朴鍾植	劉燦鍾	

○出席關係公務員

區 廳 長	鄭興鎮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 健 所 長	李星世